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7. 12. 12.(화) / 총 6매(본문 3)
담당 부서	첨단자동차 기술과	담당자	• 과장 이재평, 사무관 서형우, 주무관 방은진 • ☎ (044) 201-3851, 3854
보 도 일 시		2017년 12월 13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13.(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2017 올해의 안전한 차’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BMW 520d, 벤츠 E220d, 기아 스팅어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BMW 520d(99.1점), 벤츠 E220d(97.4점), 기아 스팅어(92.6점)**를 ‘2017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오늘 서울 COEX에서 『2017 올해의 안전한 차』 시상식을 개최하여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된 3개 자동차를 전시하고, 해당 제작사에 상패를 수여하였다.
 - 특히, **BMW 520d**는 2013년 안전도평가 종합등급제 시행 이래 역대 최고점수인 **99.1점**을 기록하여, 올해 평가대상 **11차종**(국산차 7, 수입차 4) 중에서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하였다.
 - * (국산차) 기아 모닝, 스팅어, 한국지엠 크루즈, 현대 i30, 그랜저, 코나, 쌍용 렉스턴
 - * (수입차) BMW 520d, 벤츠 E220d, 토요타 프리우스, 혼다 CR-V
- 자동차안전도평가는 **충돌·보행자·사고예방** 안전성 분야로 나뉘어 안전도를 평가하며, 그 결과 올해는 **1등급 8차종, 2등급 1차종, 그리고 3등급 2차종**으로 나타났다.

- ◇ 1등급(8개 차종): 기아 스팅어, 한국지엠 크루즈, 현대 그랜저, i30, 코나, 쌍용 렉스턴, BMW 520d, 벤츠 E220d
- ◇ 2등급(1개 차종): 토요타 프리우스
- ◇ 3등급(2개 차종): 기아 모닝, 혼다 CR-V

- 올해는 **종합점수 1,2위를 모두 수입자동차가 차지하고, 국산차는 3위에 머무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보행자안전 분야**에서 **능동형 본넷***의 의무화 여부 및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에서 **첨단 안전장치****의 의무화 여부가 점수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행자의 머리가 본넷 아래의 엔진 등 부품에 닿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충돌했을 때 자동으로 본넷이 열리는 시스템

** 차선이탈방지시스템(LKAS), 비상제동장치(AEBS) 등

차종	충돌안전성(60점)	보행자안전성(25점)	사고예방안전성(15+2점)
BMW 520d	60.0	23.2	15.9
벤츠 E220d	58.4	23.5	15.5
기아 스틱어	60.0	18.8	13.8

- 한편, **2016년 평가기준으로 2017년 평가 대상 차종의 종합점수 평균을 산정한 결과 90.8점으로** 작년 평균 종합점수와 비교 **1.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안전성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의 정도가 더 큰 여성 운전자의 인체모형과 어린이 인체모형에 대한 충돌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 **여성 운전자의 정면 충돌안전성 평균 점수는 15.2점(16.0점 만점)으로 2016년(남성 운전자, 15.1점)과 비슷한 수준이나, 여성 인체모형이 부상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의 안전성이 더욱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14년 여성 운전자 충돌안전성 시범평가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안전성이 9.4%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운전자 충돌안전성 평가에 대비한 자동차 제작사의 기술개발 성과라 할 수 있다.
 - **어린이 탑승객 충돌안전성 평가는 6세, 10세에 해당하는 어린이의 인체모형을 2열 좌석에 착석시켜 부분정면 충돌 및 측면 충돌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6세 어린이의 충돌안전성 평균 점수는 7.0점(8.0점 만점), 10세 어린이의 충돌안전성 평균 점수는 7.2점으로 나타났다.** 충돌유형으로만 보면 **부분정면 충돌했을 때 측면충돌보다 더 크게 다치며, 조수석 뒷자리보다 운전자석 뒷좌석에서 더 크게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는 작년과 달리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의 첨단 안전장치에 대한 평가가 대폭 추가되었다.
 - 작년에는 전방충돌경고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등 3가지 장치만을 평가하였으나, 올해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차로유지지원장치, 사각지대 감시장치, 첨단에어백 등 10가지 장치를 추가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 다만, 사고예방안전장치는 필수적으로 장착해야하는 안전장치가 아니므로 대상 차종별로 장착 현황이 상이했고, 13가지 장치를 모두 장착한 BMW 520d와 벤츠 E220d가 사고예방 분야에서 상위를 차지하였다.

- 또한, 올해 평가된 11차종의 결과에 대해 자동차 규모별, 가격대별로 비교한 결과 중형은 BMW 520d, 대형은 기아 스텡어가 가장 안전하고, 가성비는 현대 i30이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특히 현대 i30은 차량가격이 약 1,900만 원~2,500만 원 수준으로 평가 대상 중 낮은 편이었으나, 종합 점수가 924점으로 3~4천만 원대의 차량보다 안전성이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내년부터는 후방추돌 시 2열 탑승객의 목상해 평가를 추가 도입하고, 올해부터 시행한 어린이 충돌안전성 평가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www.kncap.org) 및 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ts2020.kr)을 통해 제공되며,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서형우 사무관(☎ 044-201-38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17년 자동차안전도평가 결과

구 분		평 가 분 야			안전도 종합등급	자동차 가격 (천원)
차 명		충돌안전성	보행자안전성	사고예방안전성		
		[60점]	[25점]	[15점+2점]	(100점)	
승용 (경형)	기아	50.5	16.0	10.6	3등급	9,450 ~ 10,750
	모닝	(84.2%,★★)	(64.0%,★★★★★)	(70.3%,★★★★)	77.1점	
승용 (중형)	현대	60.0	18.7	13.7	1등급	18,900 ~ 24,900
	i30	(100.0%,★★★★★)	(74.7%,★★★★★)	(80.0%,★★★★★)	92.4점	
	한국지엠	60.0	18.3	8.8	1등급	16,900 ~ 25,580
	크루즈	(100.0%,★★★★★)	(73.0%,★★★★★)	(58.7%,★★★★)	87.1점	
	벤츠	58.4	23.5	15.5	1등급	71,900
	E220d	(97.3%,★★★★★)	(94.0%,★★★★★)	(90.0%,★★★★★)	97.4점	
	토요타	59.4	18.5	8.1	2등급	48,300
프리우스	(99.0%,★★★★★)	(74.0%,★★★★★)	(54.0%,★★)	86.0점		
승용 (대형)	BMW	60.0	23.2	15.9	1등급	66,300 ~ 71,200
	520d	(100.0%,★★★★★)	(92.7%,★★★★★)	(92.7%,★★★★★)	99.1점	
승용 (대형)	기아	60.0	18.8	13.8	1등급	35,000 ~ 51,100
	스팅어	(100.0%,★★★★★)	(75.0%,★★★★★)	(78.8%,★★★★★)	92.6점	
	현대	60.0	18.6점	13.8	1등급	26,250 ~ 43,300
레저용 승용 (중형)	그랜저	(100.0%,★★★★★)	(74.3%,★★★★★)	(79.6%,★★★★★)	92.5점	
	현대	56.8	16.7	13.2	1등급	18,950 ~ 28,750
	코나	(94.7%,★★★★★)	(66.7%,★★★★★)	(75.0%,★★★★★)	86.6점	
레저용 승용 (대형)	혼다	56.9	13.8	9.0	3등급	39,300 ~ 43,000
	CR-V	(94.8%,★★★★★)	(55.3%,★★★★★)	(53.3%,★★)	79.7점	
레저용 승용 (대형)	쌍용	60.0	18.5	10.0	1등급	33,500 ~ 45,500
	렉스턴	(100.0%,★★★★★)	(74.0%,★★★★★)	(62.7%,★★★★)	88.5점	

□ 자동차 규모별 결과

- 중형 승용자동차는 7차종으로 BMW 520d, 벤츠 E220d, 현대 i30 순서
- 대형 3차종 중 기아 스텔러와 현대 그랜저는 유사한 안전성을 보였으나, 쌍용 렉스턴이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 안전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수입 제작사 대상 차종(4차종) 간의 결과

- 상위 등급에 랭크된 차종은 BMW 520d, 벤츠 E220d이며 토요타 프리우스와 혼다 CR-V는 충돌안전성 및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 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국내 제작사 대상 차종(7차종) 간의 결과

- 기아 스텔러, 현대 그랜저, 현대 i30이 상위를 차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기아 모닝은 충돌안전성 및 보행자안전성 분야에서 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자동차 가격대별 결과

- 3~4천만원대 5차종(스텔러, 그랜저, 렉스턴, 프리우스, CR-V) 중에서 기아 스텔러와 현대 그랜저가 높은 안전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됨
- 6~7천만원대 차종으로 BMW 520d와 벤츠 E220d가 있으며 이들은 보행자안전성 및 사고예방안전성에서 타 차종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아 높은 안전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됨
- 2천만원대 및 그 이하는 4차종(모닝, i30, 크루즈, 코나)으로 현대의 i30가 가장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3천~4천만원 대 자동차(5차종)와 비교하여도 동등 이상 수준의 안전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 3

사고예방안전성 분야 첨단안전장치 평가대상

첨단안전장치 명		주요 기능	비고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전방 차로에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 중이거나 정차 중인 자동차를 감지, 앞차와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경고제공	‘13년 시행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동차가 주행 차로를 이탈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제공	‘13년 시행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SBR)		탑승객 안전띠 착용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안전띠 미착용 탑승객에게 경고제공, 안전띠 착용 유도	‘13년 시행
비상자동 제동장치 (AEB)	고속도로 모드 (interurban)	고속도로에서의 전방 비상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감속	‘17년 시행
	시가지 모드 (City)	시가지 도로에서의 전방 비상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감속	‘17년 시행
	보행자 모드 (Pedestrian)	앞의 보행자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감속	‘17년 시행
최고속도 제한장치	조절형(SLD)	운전자가 임의로 설정한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경고발생	‘17년 시행
	지능형(ISA)	실제 도로의 제한속도와 연동되어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경고발생	‘17년 시행
적응순항 제어장치 (ACC)		앞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의 속도에 맞게 자동으로 가.감속하여 안전거리 또는 설정속도를 유지	‘17년 시행
사각지대 감시장치(BSD)		사각지역의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	‘17년 시행
차로유지 지원장치 (LKAS)		자동차가 차로 내를 주행하도록 자동차의 좌우 방향 제어	‘17년 시행
후측방접근 경고장치 (RCTA)		후진 중 자동차 뒤쪽 옆면에서 접근하는 다른 자동차를 감지하여 경고	‘17년 시행
첨단에어백 (Advanced Airbag)		충돌심각성, 탑승자의 탑승 유무 및 승객을 구분하여 에어백의 전개 유무, 에어백 내부 압력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에어백	‘17년 시행

* 음영 처리된 장치는 기본점수 항목으로 운영, 나머지 장치는 가점제로 운영